

'조별리그 무승·무득점' 중국, 카타르에 0-1 패배로 조 3위 [뉴스시스Pic]

등록 2024.01.23 08:50:07



[도하(카타르)=뉴스시스] 김근수 기자 = 22일(현지시각) 카타르 도하 칼리파 인터네셔널 경기장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(AFC) 2023 카타르 아시안컵 A조 조별예선 3차전 카타르 대 중국의 경기, 카타르 알 하이도스의 결승골로 카타르가 1:0 승리했다. 우레이 등 중국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아쉬워하고 있다. 2024.01.23. ks@newsis.com

[서울=뉴스시스]조성우 김근수 김진엽 기자 = 중국이 카타르에 패배했지만 '2023 아시아축구연맹(AFC) 아시안컵' 조별리그 A조 조 3위를 기록해 극적 16강 진출 희망을 이어갔다.

중국은 23일 0시(한국시간) 카타르 알라이안의 칼리파 인터네셔널 스타디움에서 열린 카타르와의 아시안컵 조별리그 A조 3차전에서 하산 알하이도스에게 실점하며 0-1로 패배했다.

중국은 2무1패(승점 2)로 조별리그 3경기 동안 단 1승도 못했다. 득점도 단 1골도 넣지 못했으나, 같은 시각 열린 타지키스탄과 레바논의 결과 덕에 16강 진출 가능성을 살렸다. 타지키스탄은 레바논에 2-1 역전승을 거뒀다.

3연승으로 승점 9로 조 1위를 기록한 카타르는 조 1위가 됐고, 극적 승리를 챙긴 타지키스탄은 1승1무1패(승점 4)로 조 2위를 확정했다. 두 팀은 16강에 진출했다.

2무1패(승점 2)의 3위로 조별리그를 마친 중국은 아직 16강 진출 희망이 남아있다.

이번 대회는 총 24개 국이 참가해 6개 조로 나눠 조별리그를 치르고 있다. 각 조 1, 2위가 16강에 진출하고, 남은 4개 자리는 각 조 3위 상위 4개 국에 돌아간다.

이에 남은 5개 조의 3위 중 2개 국가가 중국보다 승점을 쌓지 못하면, 중국은 극적으로 16강에 오를 수 있다.



[도하(카타르)=뉴스시스] 김근수 기자 = 22일(현지시각) 카타르 도하 칼리파 인터네셔널 경기장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(AFC) 2023 카타르 아시안컵 A조 조별예선 3차전 카타르 대 중국의 경기, 카타르 알 하이도스의 결승골로 카타르가 1:0 승리했다. 중국 축구대표팀 우레이가 아쉬워하고 있다. 2024.01.23. ks@newsis.com



[도하(카타르)=뉴스시스] 김근수 기자 = 22일(현지시각) 카타르 도하 칼리파 인터네셔널 경기장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(AFC) 2023 카타르 아시안컵 A조 조별예선 3차전 카타르 대 중국의 경기, 카타르 알 하이도스의 결승골로 카타르가 1:0 승리했다. 중국 축구대표팀 응원단이 아유를 보내고 있다. 2024.01.23. ks@newsis.com



[도하(카타르)=뉴스시스] 김근수 기자 = 22일(현지시각) 카타르 도하 칼리파 인터네셔널 경기장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 (AFC) 2023 카타르 아시안컵 A조 조별예선 3차전 카타르 대 중국의 경기, 카타르 알 하이도스의 결승골로 카타르가 1:0 승리했다. 중국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아쉬워하고 있다. 2024.01.23. ks@newsis.com



[도하(카타르)=뉴스시스] 김근수 기자 = 22일(현지시각) 카타르 도하 칼리파 인터네셔널 경기장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 (AFC) 2023 카타르 아시안컵 A조 조별예선 3차전 카타르 대 중국의 경기, 카타르 알 하이도스의 결승골로 카타르가 1:0 승리

했다. 중국 축구대표팀 우레이가 아쉬워하고 있다. 2024.01.23. ks@newsis.com



[도하(카타르)=뉴스시스] 김근수 기자 = 22일(현지시각) 카타르 도하 칼리파 인터네셔널 경기장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 (AFC) 2023 카타르 아시안컵 A조 조별예선 3차전 카타르 대 중국의 경기, 전반 중국 웨이 시하오가 슈팅하고 있다. 2024.01.23. ks@newsis.com



[도하(카타르)=뉴시스] 김근수 기자 = 우레이 등 중국 축구국가대표팀 선수들이 22일(현지시각) 카타르 도하 칼리파 인터네셔널 경기장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(AFC) 2023 카타르 아시안컵 A조 조별예선 3차전 카타르 대 중국의 경기에서 전반 중국 웨이 시하오의 슈팅이 빗나가자 아쉬워하고 있다. 2024.01.23. ks@newsis.com



[도하(카타르)=뉴시스] 김근수 기자 = 22일(현지시각) 카타르 도하 칼리파 인터네셔널 경기장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(AFC) 2023 카타르 아시안컵 A조 조별예선 3차전 카타르 대 중국의 경기, 전반 중국 링량밍과 카타르 아사달라가 볼경합도 중 넘어지고 있다. 2024.01.23. ks@newsis.com



[도하(카타르)=뉴스시스] 김근수 기자 = 22일(현지시각) 카타르 도하 칼리파 인터네셔널 경기장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 (AFC) 2023 카타르 아시안컵 A조 조별예선 3차전 카타르 대 중국의 경기, 전반 중국 장 유닝이 헤딩슛을 하고 있다. 2024.01.23. ks@newsis.com



[도하(카타르)=뉴스시스] 김근수 기자 = 22일(현지시각) 카타르 도하 칼리파 인터네셔널 경기장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 (AFC) 2023 카타르 아시안컵 A조 조별예선 3차전 카타르 대 중국의 경기, 전반 중국 장 유닝과 왕 상위안이 뒤엉켜있다. 2024.01.23. ks@newsis.com



[도하(카타르)=뉴스시스] 김근수 기자 = 22일(현지시각) 카타르 도하 칼리파 인터네셔널 경기장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(AFC) 2023 카타르 아시안컵 A조 조별예선 3차전 카타르 대 중국의 경기, 후반 카타르 알 하이도스가 선취골을 넣고 기뻐하고 있다. 2024.01.23. ks@newsis.com



[도하(카타르)=뉴스시스] 김근수 기자 = 22일(현지시각) 카타르 도하 칼리파 인터네셔널 경기장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(AFC) 2023 카타르 아시안컵 A조 조별예선 3차전 카타르 대 중국의 경기, 후반 카타르 알 하이도스가 선취골을 넣자 중국 수비수 류 양이 아쉬워하고 있다. 2024.01.23. ks@newsis.com



[도하(카타르)=뉴스시스] 김근수 기자 = 22일(현지시각) 카타르 도하 칼리파 인터네셔널 경기장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 (AFC) 2023 카타르 아시안컵 A조 조별예선 3차전 카타르 대 중국의 경기에 카타르 알 하이도스의 결승골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다. 중국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아쉬워하고 있다. 2024.01.23. ks@newsis.com

©공감언론 뉴스시스 xconfind@newsis.com, ks@newsis.com, wlsduq123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